



# 4연속 위닝시리즈·양현종 첫 승 불발

KIA 양현종이 7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서 선발로 나와 퀄리티스타트를 기록했지만 팀의 3-7 패배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KIA 타이거즈 제공>

### 마운드·수비 불안 KIA, 삼성에 3-7로 저 시즌 첫 연패 선발 양현종은 6이닝 1피홈런 3사사구 2탈삼진 3실점



‘호랑이 군단’의 4연속 위닝시리즈 도전에 불넷과 수비 실책이 막았다. KIA 타이거즈가 7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시즌 3차전에서 3-7 역전패를 기록했다. 전날 4-7 패배에 이은 시즌 첫 연패로 4연속 위닝시리즈가 무산됐다. 전날 12개의 사사구를 남기며 승리를 내뿜던 KIA는 이날 3개의 실책으로 흔들렸다. 선발 이범호는 KIA의 우위가 점쳐지는 주

말 2연전이었다. 크로우가 선발로 나선 지난 5일 레이스를 상대로 5-2로 이기며 3연승에 성공했던 KIA는 운영철과 양현종을 내세워 연속 잇기에 나섰다. 삼성에서는 이승민과 이호성이 선발로 나섰다. 하지만 이들 연속 만원 관중이 들어선 챔피언스필드에서 승리의 세리머니를 한 팀은 삼성이었다. 지난 6일 운영철이 4.2이닝 6피안타 5볼넷 4탈삼진 4실점의 아쉬운 성적을 냈고, ‘0’의 행진을 하던 전상현도 0.2이닝 4피안타 3실점의 패전투수가 됐다. 8개의 볼넷과 3개의 사구가 나오는 등 마운드 정교함이 떨어졌다. 이날 17년 차 베테랑 포수 김태군이 프로 첫 연타석 홈런도 날렸지만 승리를 이끌

기에는 역부족이었다. 7일 경기에서도 KIA는 초반부터 어려운 싸움을 했다. 출발은 나쁘지 않았다. 박찬호가 사구로 인한 허리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제외되면서 톱타자로 나선 서건창이 1회 첫 타석에서 볼넷으로 출루했다. 이 우성의 적시타가 나오면서 KIA가 선취점을 만들었지만 2회초 양현종이 바로 동점을 허용했다. 2사에서 7번 타자 공민규를 상대한 양현종이 1볼 스트라이크에서 던진 3구째 145km 직구가 우중간 담장을 넘어가면서, 1-1 원점으로 돌아갔다. 3회에도 양현종의 실점이 올라갔다. 선두타자 김재성에겐 던진 직구가 좌중간을 가르면서 2루타가 됐다. 김지찬의 번트 타구가 1루수 서건창의 글로브로 빨려 들어가면서 원아웃, 김현준은 2루 땅볼로 처리했지만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채우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 김재혁을 볼넷으로 내보낸 양현종이 강민호에게

좌전 적시타를 맞았다. 양현종은 김영웅의 우중간 2루타로 세 번째 점수를 내줬다. 양현종은 이후 4-5-6회 안타와 몸에 맞는 볼을 하나씩 기록했지만 추가 실점 없이 6이닝 5피안타(1피홈런) 3사사구 2탈삼진 3실점으로 선발 역할을 완수했다. 하지만 후반 싸움에서 공수의 집중력이 아쉬웠다. 4회말 이우성의 선두타자 2루타를 앞세워 3-3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던 KIA, 6회 이우성이 다시 선두타자로 나와 3안타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어 김선민의 병살타가 나왔다. 7회 2사에서는 서건창과 최원준의 연속 안타가 만들어졌지만 소크라테스가 삼진으로 물러났다. 8회에는 최형우가 선두타자로 나와 볼넷을 얻어냈지만 더 이상의 진루는 없었다. 오승환이 출격할 9회는 삼자범퇴로 끝났다. 수비에서도 아쉬움이 남았다. 최지민이 출격한 7회 1사에서 김지찬의 좌전안

타가 나왔다. 김현종의 좌전안타가 이어졌고, 공을 잡은 소크라테스가 유격수 박민에게 넘긴 공이 포구가 되지 않았다. 그 사이 김지찬이 3루까지 이동했다. 그리고 김재혁의 중견수 희생플라이가 나오면서 3-4역전이 됐다. 8회 장현식이 김현군에게 좌월 솔로포를 허용하면서 3-5. 9회초 수비에서 KIA가 백기를 들었다. 김건국이 마운드에 올라 김재성을 우익수 플라이로 처리했지만 김지찬과의 승부에서 스트레이트 볼넷을 허용했다. 김지찬이 도루로 2루로 이동했고, 낮아웃 상황에서 공이 빠지자 3루까지 갔다. 이어 김재혁의 땅볼 타구를 잡은 박민의 1루 송구가 바운드 되면서 뒤로 빠졌고 3루에 있던 김지찬이 홈에 들어왔다. 실책으로 3루로 갔던 김현준은 강민호의 우익수 희생플라이로 홈에 들어왔다. 점수는 3-7까지 벌어졌고 KIA는 ‘최하위’에서 광주를 찾았던 삼성에 2승을 내줬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KIA 또 부상...박찬호 ‘사구 후유증’ 이탈

KIA 타이거즈에 부상 이탈자가 또 발생했다. KIA 타이거즈가 7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홈경기에서 앞서 앞서 엔트리를 교체했다. 내야수 박찬호가 말소되고, 김규성이 등록됐다. 박찬호는 전날 경기에서 3회 안타를 치고 나간 뒤 김도영의 좌익수 플라잉 때 귀루를 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통증을 호소해 4회 수비에서 박민과 교체됐다. 지난 3월 31일 두산전 사구가 원인이었다. 박찬호는 이날 7회 두산 최지강과의 승부에서 좌측 허리 뒷부분에 공을 맞으면서 홍추부 타박상을 입었다. 이범호 감독은 7일 “잠실에서 데드볼 맞고 멍이 들어있었는데 슬러이딩하는 과정에서 그런 건지 통증이 있었다. 부종이 있다고 해서 엔트리를 빼야 할

것 같았다. 찬호 성격이면 한다고 할 것인데 날카로운 통증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KIA는 개막에 앞서 ‘주장’ 나상범이 우측 햄스트링 부상으로 재활군에 됐고 3월 28일에는 황대인이 왼쪽 햄스트링을 다치면서 엔트리에서 빠졌다. 4월 1일에는 ‘잠수함’ 임기영이 좌측 내복사근 미세 손상으로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유격수 겸 톱타자가 빠지면서 KIA 전력 운영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지난해 상무에서 전역하고 복귀 시즌을 맞은 박민이 유격수 자리에서 기회를 얻는다. 톱타자는 상황에서 따라 변동된다. 박민은 KIA가 기대하는 내야 유망주다. 박민은 지난 6일 박찬호의 대수비로 들어가 8회 2사 만루 상황에서도 침착한 수비를 선보이면서 박수를 받았다.

이범호 감독은 “올 시즌 백업 수비 선수로 박민을 생각했는데 공격 능력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어제 만루 상황에서 수비하는 것을 보면 안정성이 나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작전, 번트, 경기 풀어나갈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내야수 중 상당한 유망주로 판단하고 있다. 좋은 기회니까 잘 잡아보고 했다. 최고치를 바라는 것은 아니니까 본인 하는 느낌대로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찬호가 빠진 첫날 공격 전면에는 서건창이 썼다. 이범호 감독은 “1번 타자는 상황에 맞게 치게 할 것이다. 변화된 타순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2149일 만에...챔스필드 이틀 연속 매진

챔피언스필드가 이틀 연속 만원 관중으로 가득 찼다.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시즌 3차전이 열린 7일 챔피언스필드 2만 500석이 오후 2시 10분 모두 팔려나갔다. 챔피언스필드 세 번째 매진이다. 이틀 연속 매진 사례이기도 하다. 전날에는 경기 시작 10분을 남겨두고 챔피언스필드의 2만 500석 판매가 완료됐다. 두 경기 연속 만원은 2014년 챔피언스필드 개장 이후 7번째이다. 가장 최근 2경기 연속 만원 관중은 SK(현 SSG)와 대결했던 2018년 5월 19-20일 이후 2149일 만이다. 세 번째 매진과 함께 KIA는 올 시즌 홈 6경기에 9만 1733명을 동원하면서 평균 관중 1만

5289명을 기록하고 있다. KIA와 함께 시즌 초반 선두 싸움을 하고 있는 한화 이글스도 고척돔 매진 기록을 만들어냈다. 고척스카이돔에서 치러진 한화와 키움 히어로즈의 주말 3연전 내내 1만6000명이 입장하면서 3경기 연속 매진이 기록됐다. 2016년 문을 연 고척스카이돔의 3경기 연속 매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리아 몬스터’ 류현진의 복귀와 초반 연승 행진으로 바람을 탄 한화는 올 시즌 홈 5경기 관중석을 모두 가득 채웠다. 원정 5경기에서도 매진이 이뤄지는 등 한화는 올 시즌 치른 13경기 중 10경기를 만원 관중 앞에서 치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황유민, KLPGA 시즌 첫 우승...상금·대상 1위

### 두산건설 워브 챔피언십 14언더파...상금 2억1600만원

황유민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국내 개막전 정상에 올랐다. 황유민은 7일 제주도 서귀포시 테디밸리 골프&리조트(파72)에서 열린 KLPGA 투어 두산건설 워브 챔피언십(총상금 12억원) 최종 라운드에서 1언더파 71타를 쳐 함께 14언더파 274타로 우승했다. 두산건설 워브 챔피언십은 KLPGA 투어가 올 시즌 국내에서 처음 개최된 대회다. 이번 시즌 3번째 출전한 대회에서 정상에 오른 황유민은 지난해 7월 대우위니아 MBN 여자오픈 이후 9개월 만에 통산 2승 고지에 올랐다. 박혜준을 1타 차로 따돌린 황유민은 우승 상금 2억 1600만원을 받아 상금랭킹 1위(2억5266만원)

를 꿰찼고, 대상 포인트 1위도 점령했다. 키 163cm의 작은 체격에도 강하고 빠른 스윙으로 장타를 평평 날리며 신인이던 작년 장타 부문 2위에 올랐고 공격적인 플레이로 ‘돌격대장’이라는 별명을 얻은 황유민은 이번 대회에서 특히 나흘 내내 장신 장타자들과 맞대결을 펼친 끝에 우승까지 따냈다. 1, 2라운드에서는 2022년 장타 1위 윤이나와 작년 장타 1위 방신실과 동반 라운드를 치른 끝에 8타차 완승을 거두며 선두로 반환점을 돌았다. 윤이나와 방신실은 둘 다 키 170cm가 넘는 장신에서 뿜어나오는 장타를 치는 선수들이다. 3라운드는 지난해 장타 3위였던 문정민과 맞대

결 끝에 2타 차 선두로 나섰다. 문정민도 171cm의 큰 키에서 장타를 때린다. 최종 라운드에서 황유민과 챔피언 조에서 경기한 박혜준과 강지선 역시 170cm가 훌쩍 넘는 장신이다. 박혜준은 키 177cm로 KLPGA 투어 최장신이고 강지선은 키 171cm이다. 나흘 내내 KLPGA 투어를 손꼽는 장타자들을 차례로 제친 셈이다. 2022년 처음 KLPGA 투어 무대에 올라 상금랭킹 71위에 그치는 실패를 겪고 지난해 드림투어 상금랭킹 8위로 KLPGA 투어 두 번째 시즌을 맞은 박혜준(13언더파 275타)이 국내 첫 대회에서 데뷔 후 최고 성적을 내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디펜딩 챔피언 이예원은 공동 42위(1언더파 287타)에 그쳤다. /연합뉴스



황유민이 7일 제주 서귀포시 테디밸리 골프앤리조트에서 열린 ‘두산 We’ve 챔피언십’ 파이널라운드 4번 홀에서 어프로치 샷하고 있다. /연합뉴스